

혁신을 넘어 세계로

KAIST

# 대만 3대 기업 포모사 그룹과

# 손 맞잡다

MOA체결 및 겸직교수 임명식 2024. 5. 13.  
簽署MOA暨兼任教授聘任典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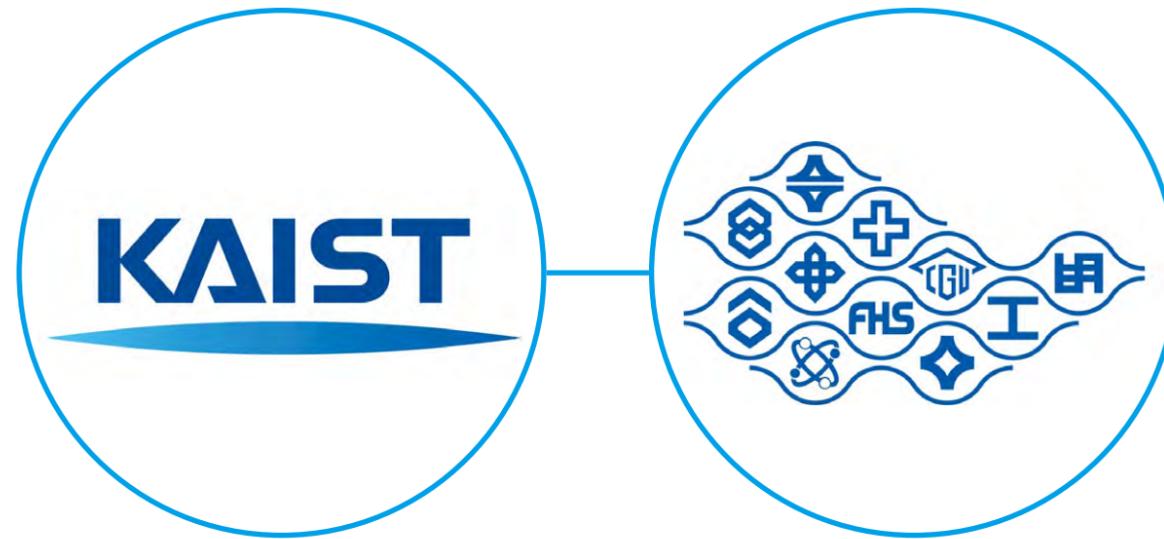
台塑生醫 FORMOSA BIOMEDICAL 台塑新智能 FORMOSA SMART ENERGY 長庚大學 CHANG GUNG UNIVERSITY 長庚紀念醫院 CHANG GUNG MEMORIAL HOSPITAL 明志科技大學 MING CHIE UNIVERSITY OF TECHNOLOGY KAIST



KAIST가 첨단 바이오 및 공학 기술을 세계 무대로 진출시키기 위해 대만의 포모사 그룹과 글로벌 협력을 추진한다. 지난 3월 포모사 그룹 산하의 명지과학기술·장경대학교·장경기념병원과 업무협약(MOU)을 시작으로, 줄기세포 및 유전자 편집 기술 분야 특화 대학원 개설, 교내 우수 벤처기업 투자 협력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5월 13일 포모사 샌디왕 회장은 KAIST가 매달 보직자들을 교육하는 강의인 '매세월 서연' 프로그램에서 리더십 특강을 진행했다.



샌디왕 회장은 '부친 왕용칭(王永慶) 회장의 교육관과 기업의 사회 환원 및 실천'을 주제로 이야기했다.

포모사그룹은 '대만의 삼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플라스틱 PVC 시장에서 생산량 기준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한 세계적인 기업인 데다, 석유화학부터 정유, 에너지, 섬유, 전자, 중공업, 자동차, 운동 등 다수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만을 대표하는 반도체 업체인 '남야테크놀로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도 성과 닮은꼴이다.

포모사가 이번에 한국, 그중에서도 KAIST를 찾은 목적은 사업이 아닌 연구와 교육이다. 포모사가 소유한 병원과 교육기관에 KAIST의 앞선 바이오 및 공학 기술을 도입하는 한편 첨단 의료 분야의 전문가를 함께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KAIST와 포모사는 이미 지난 3월 포모사그룹이 설립한 명지과기대, 장경대학교,

장경기념병원과 업무협약(MOU)을 맺은 바 있다.

이번 방문은 3월의 MOU에 이어 더 구체적인 교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기획됐다. 협약을 위해 포모사그룹 상무위원이자, 그룹 내 바이오 및 친환경에너지 분야를 선도하는 샌디왕(王瑞瑜, Sandy Wang) 회장이 KAIST에 13일 방문했다. 포모사 그룹의 오너가 KAIST를 공식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AIST를 찾은 샌디왕 회장은 KAIST 리더십 혁신 프로그램인 '매세월 서연'에서 '부친 왕용칭(王永慶) 회장의 자녀교육과 기업의 사회 환원 및 실천'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실제로 왕용칭 회장은 차세대 인재 육성 및 총체적 의료서비스 구현하고자 장경의료재단법인을 설립했을 뿐 아니라, 사망 후 자신의 전 재산 9조원을 사회

에 환원하라는 유언을 남겨 세상을 놀라게 했다.

강연 이후에는 첨단 바이오, 친환경에너지와 같은 미래 산업과 연관된 KAIST의 기술을 참관했다. 산업구조의 유사성으로 인해 대만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바이오와 에너지, ICT 등의 첨단분야를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고 있다. KAIST가 강세를 보이는 전기차 관련 기술이 특히 이목을 끌었다.

KAIST와 포모사 그룹은 상호 겸직교수를 임명해 학생 공동지도 및 연구 협력 등 실질적인 글로벌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KAIST 차세대 ESS 연구센터와 배터리 응용 연구 진행하고, 장경대학-장경기념병원과 연계해 줄기세포 및 유전자 편집 기술 분야 특화 대학원을 개설하는 등 상호성 높은 중

장기 협력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에 KAIST는 김대수 생명과학기술대학장과 김경수 대외부총장 등 총 7명을 겸직교수로 임명했고, 장경대학교 측에서 4명, 명지과기대학교는 3명을 겸직교수로 임명했다. 이 밖에도 바이오 및 친환경에너지 관련 KAIST 우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포모사 그룹의 투자와 협력도 함께 추진해, 대만과 한국 간 혁신 산업 협력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포모사 그룹은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갖춘 만큼, KAIST 바이오 및 공학 기술의 세계 진출에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샌디왕 회장의 방문으로 세계 경제 대국으로 부상 중인 대만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AISTi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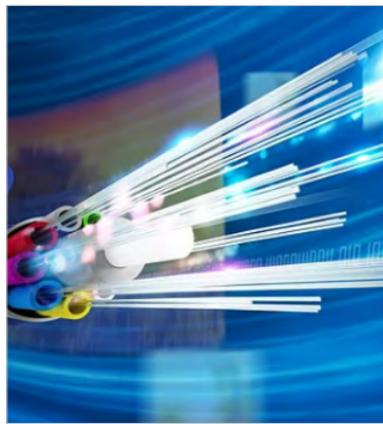
KAIST에 방문한 포모사 임직원들은 K-Space에서 KAIST가 개발한 친환경 모빌리티 기술을 경험했다. 이날 현장에서 KAIST는 소형 전기관력, 디젤-하이브리드 트럭, 자율주행차, 자율주행 LSV와 같은 친환경 모빌리티 차량과 MCU, VCU, BMS 등 전동화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선보였다.



### + 자바스크립트 안정성을 책임지다

KAIST 전산학부 류석영 교수 연구팀이 고려대 박지혁 교수와 공동연구를 통해 인간 친화적인 형태인 영어로 작성한 자연어 명세에서 컴퓨터에 친화적인 형태인 기계화 명세를 자동으로 추출해 이를 기반으로 자바스크립트 생태계 안정성을 보장하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을 활용하여 크롬 및 엣지와 같은 웹 브라우저에 내장된 자바스크립트 엔진 및 코드 변환 도구에서 수많은 결함을 검출해 내는 데 성공했다.

>> 더보기



### +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파이버형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개발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박성준 교수 연구팀이 초소형 와이어 병합 열 인발공정으로 카본, 폴리머, 금속의 다양한 재료를 통합하여 4가지 가능성을 가진 다기능 섬유형 신경 인터페이스를 개발했다. 연구팀은 제작된 하나의 섬유가 카본 파이버를 통한 도파민 모니터링, 마이크로 유체관을 통한 약물 주입, 폴리머 광 도파관을 통한 광 유전학적 신경 자극, 그리고 초소형 와이어를 통한 전기신호 측정을 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 더보기



### + 장기 별 직접 약물 전달이 가능해진다

KAIST 생명과학과 전상용 교수와 화학과 이희승 교수 공동연구팀이 체내에서 여러 생물학적 상호작용에 관여하는 당질 층을 모방한 인공 탄수화물 나노입자 수십종을 합성하여 이를 다양한 장기로의 특이적 약물 전달과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나노의학 개발에 성공했다. 연구팀은 다섯 가지의 단당류 단위체를 기반으로 한 조합적인 패턴을 구현해 '인공 탄수화물 나노입자(GlyNP)' 라이브러리 수십종을 합성했다.

>> 더보기



### + 해양 속 82%까지 생분해되는 종이 포장재 개발

KAIST 건설및환경공학과 명재욱 교수, 생명과학과 양한슬 교수 및 연세대학교 패키징및물류학과 서종철 교수 공동 연구팀이 지속가능한 해양 생분해성 고성능 종이 코팅제를 개발했다. 연구팀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인 폴리비닐알코올(polyvinyl alcohol)에 붕산(boric acid)을 이용해 고물성 필름을 제작하였으며, 이를 종이에 코팅하여 생분해성, 생체 적합성, 고차단성, 고강도를 갖는 패키징 소재를 구현하는데 성공하였다.

>> 더보기



### + 교가·애국가 챌린지에 총장님도 나선다

KAIST가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 경연대회인 '2024 교가·애국가 챌린지'를 개최한다. '2024 교가·애국가 챌린지'는 우리 대학의 가치와 교육이념에 대한 공감도를 높이고 애국심과 애교심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다. 이광형 총장은 학부생 합창동아리 구도사와 함께 무대에 오른다. 이 총장은 이번 경연을 위해 교가를 개사해 직접 가사를 쓴 랩을 선보일 예정이다.

>> 더보기



### + 김세권·박지호·문수복 교수,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유공 장관표창 수상

KAIST 물리학과 김세권 교수, 바이오및뇌공학과 박지호 교수, 전산학부 문수복 교수가 4월 22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유공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기념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 진흥 및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자를 포상,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 더보기



### + 물리학과 서민교 교수,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수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5월 수상자로 KAIST 물리학과 서민교 교수를 선정했다. 서 교수는 광학적 무반사와 광학적 진공의 실험적 극한에 도전해 약한 세기의 빛-물질 상호작용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과 가능성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 교수는 또 원자적 수준으로 얇은 박막 매질에 존재하는 전자와 정공의 결합체인 2차원 매질 엑시톤이 빛의 형태로 에너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보다 오랜 시간 존속하도록 했다.

>> 더보기



### + 롯데케미칼, '천원의 아침밥' 쌀 10톤 기부

KAIST가 롯데케미칼로부터 4월 24일 3천만 원 상당의 쌀 10톤을 기부받았다. 이와 함께 ㈜롯데케미칼 임직원 10여 명이 KAIST 캠퍼스에 방문해 기부된 쌀을 학생식으로 운반하는 봉사활동도 진행됐다. ㈜롯데케미칼 송보근 연구소장은 "언론보도를 통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접했고, 대전지역 대학교와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어 이번 기부를 진행하게 됐다"라며, "학생들이 과학 기술 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기부 배경과 취지를 밝혔다.

>> 더보기



### + KAIST 연구자들의 축제, 2024 리서치데이 개최

KAIST가 '2024년 KAIST 리서치데이'를 5월 21일 대전 본원 학술문화관(E9)에서 개최했다.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KAIST 리서치데이'는 탁월한 성과를 배출한 연구자를 포상하고 우수 연구성과를 공유해 연구개발 정보를 교류하는 자리다. 최고 연구상인 '연구대상'은 방효충 교수가 수상했다. 이와 함께, 이재우, 김주영 교수가 각각 '연구상'을 수상한다. 리생 교수가 '특별연구상'을 받으며, 최준근 교수가 '이노베이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 더보기



### + 갤럭시코퍼레이션과 K-Pop 글로벌 협력 시작하다

KAIST가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을 영입해 화제가 됐던 인공지능 메타버스 기업 갤럭시코퍼레이션과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양 기관의 인연은 2022년 2월 KAIST 졸업식에서 시작됐다. 당시 KAIST는 대학 중에는 세계 최초로 베투얼 아바타를 활용한 총장 연설을 선보였다. 마치 시간을 거스른 듯 이광형 총장이 대학원생 시절의 모습과 목소리로 등장해 화제를 모았는데, 여기서 아바타 기술을 담당한 기업이 바로 갤럭시코퍼레이션이다.

>> 더보기



### + KAIST-머크社, 글로벌 바이오산업 선도 위한 업무협약 체결

KAIST가 글로벌 과학기술 선도기업인 머크 라이프사이언스와 첨단바이오 분야 혁신과 기술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9일 체결했다. 지난해 5월부터 다차원적인 혁신 프로그램을 논의해 온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발판 삼아 바이오산업 혁신을 위한 도전과제를 중심으로 산학협력을 수행할 예정이다.

>> 더보기



### + KAIST, 삼성중공업과 30년을 지나 또 다른 혁신을 기대하다

KAIST가 '삼성중공업-KAIST 산학협력 30주년 기념행사'를 5월 10일 오후 대전 본원 학술문화관 존해너홀에서 개최했다. 1995년 시작된 KAIST와 삼성중공업의 산학협력은 두 기관 모두에서 가장 오래 유지되고 있는 산학협력협의체다. 30년간 국가 경제를 뒀던 다양한 위기 속에서도 대학과 기업이 활발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장기간 공백 없이 유지해 온 이례적인 사례로 꼽힌다.

>> 더보기